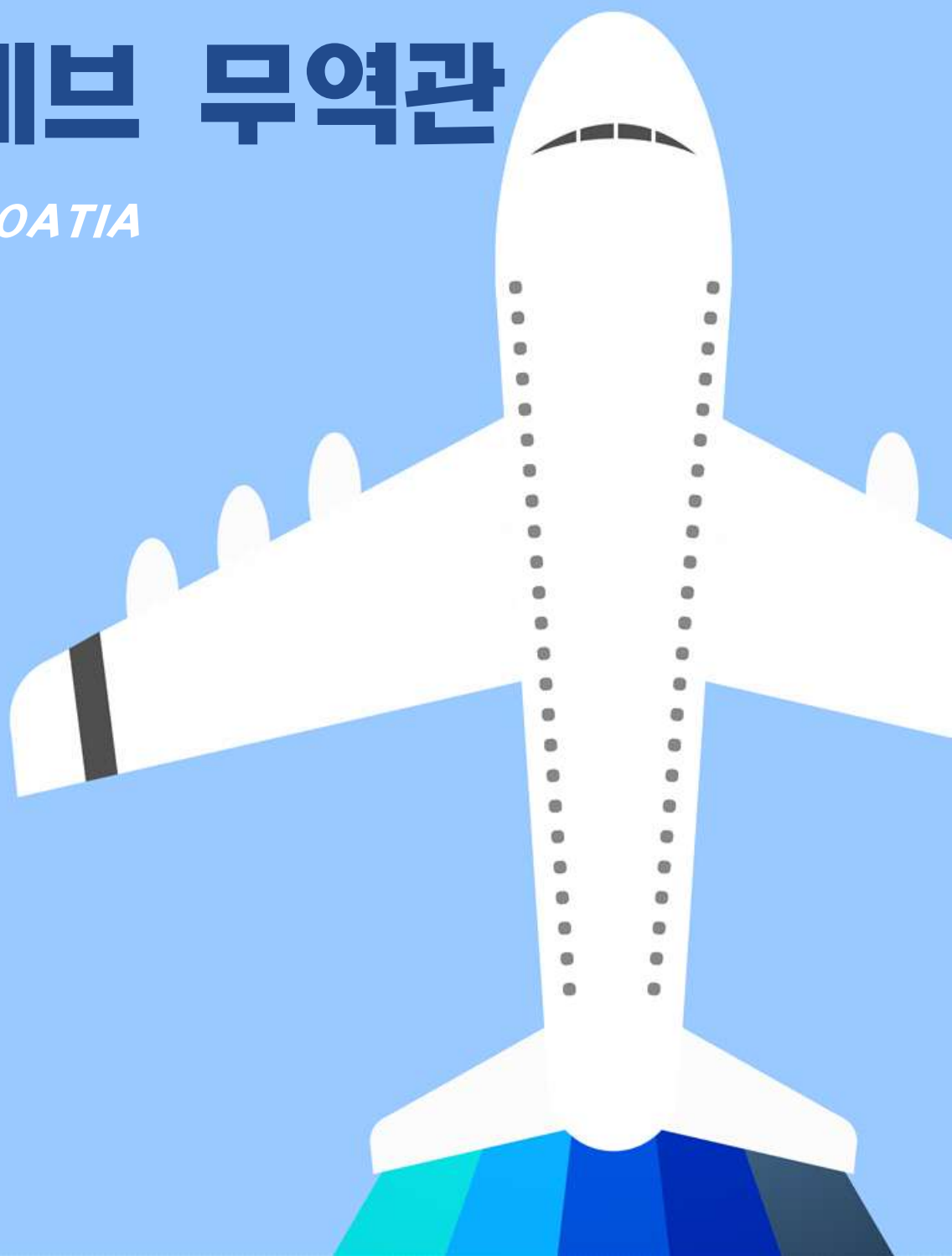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무역관

ZAGREB CROATIA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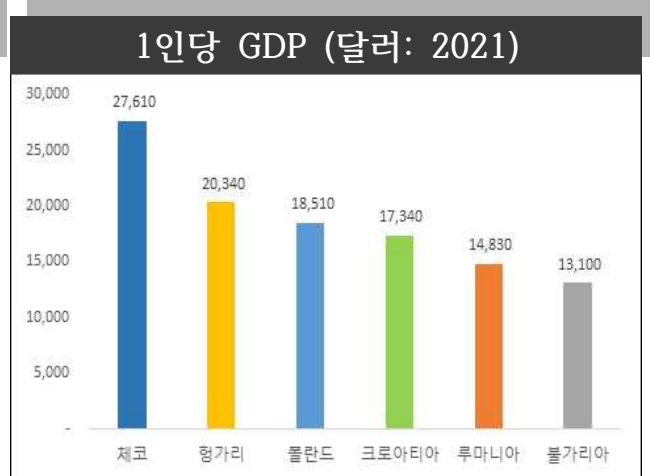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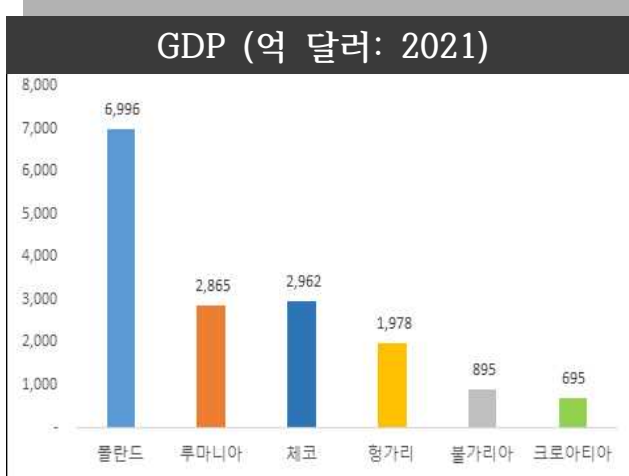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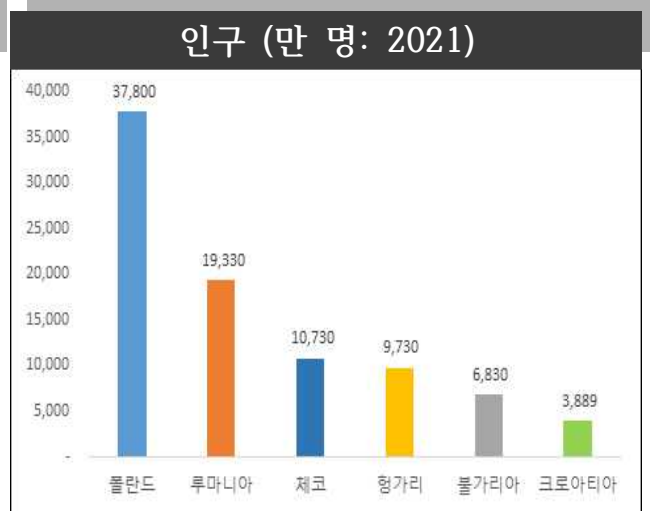
I. 크로아티아 개황	1
II. 역사 개관	3
III. 시장 특성 및 상관습	4
IV. 최근 경제 및 교역 현황	6
V. 투자환경	14
VI. 체류정보	17

I. 크로아티아 개황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에 인접한 관광 국가로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슬라보니아 평원 농업지대와 북부 및 중부의 산악지대,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지역으로 구분 가능
- 1991년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와의 내전을 겪었으며 95년 미국의 전쟁개입과 데이턴 협정으로 종전
-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 전환 및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EU에 2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2020년 상반기 EU 의장국

- 국 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 (Republic of Croatia)
- 면 적 : 56,594 km² (한반도의 1/4, 남한의 1/2 규모)
- 기 후 : 지중해성(해안), 대륙성(내륙)
- 인 구 : 약 389만 명
- 수 도 : 자그레브(Zagreb)
-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국가수반) :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사회당)
 - 수상 (정부수반)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 주요도시 : Zagreb(80만 명), Split (20만 명), Rijeka(13만 명)
- 민 족 : 남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 언 어 : 세르보-크로아티아어 (라틴문자 사용)
 - * 인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에서 통용
 - *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와는 같은 언어군이나 일상적 소통은 곤란
- 종 교 : 가톨릭(86.3%), 정교(4.4%), 이슬람교(1.5%)
- 건국(독립)일 : 1991.6.25 (구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
- 화폐단위 : Kuna (HRK) (1 US\$=7.0 Kuna, 1 EUR=7.5 Kuna)
 - * 1 kn= 180원 상당

<크로아티아 경제 규모>



자료: Eurostat, IMF

< 2021년 구 유고연방 국가 경제 규모>

구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인구(백만)	3,889	2.110	6.840	3.47	0.62	1.80
GDP(US\$ 억)	695	637	650	234	60	90
1인당 GDP(US\$)	17,340	30,160	8,750	9,500	9,670	5,031
1인당 GDP (US\$ at PPP)	32,942	44,067	21,637	16,009	22,566	12,833
평균임금(gross, US\$)	1,359	2,201	928	846	851	420

자료: IMF, UNECE, 각국 통계청

II. 역사 개관

1. 정착 및 국가 형성 (4세기~10세기)

- 4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의 혼란을 계기로 슬라브족의 이주 및 정착 시작
 - 현재 보스니아를 경계로 서쪽은 서로마제국 영향 아래의 가톨릭 국가로, 동쪽 지역 기타 발칸국가들은 동로마제국의 영향으로 정교 국가로 발전함.
- 10세기 들어 최초의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

2. 외세지배 하의 크로아티아 (12세기~20세기)

- 크로아티아는 당시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네치아 등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겪음
- 16세기 오토만 제국의 유럽 침략으로 이슬람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발칸 국가는 가톨릭, 정교, 이슬람 등 3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
- 1918년 1차 대전 직후 크로아티아 의회는 191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으로부터 분리선언
 - 세르비아 중심의 통합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에 가담

3. 20세기 이후 : 유고슬라비아 시절과 독립 (20세기 이후)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티토가 이끄는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편입되어 공산 독재체제가 1980년 티토의 사망 시까지 지속
 - 냉전 붕괴 시기인 1989년에는 민족주의 열풍이 확산하면서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
- 1990년 봄 크로아티아의 자유선거 시행으로 투즈만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HDZ)이 승리, 1991년에 독립 선언 이후 내전에 직면
 - 1995년 데이턴(Dayton)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오늘날의 평화체제 정착

Ⅲ. 시장특성 및 상관습

1. 시장특성

- **(소규모 시장)** 분리 독립 후 구유고슬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으면서 시장규모 축소
 - 높은 소매상 마진, 부가가치세(25%)로 인해 시급한 생필품이나 식품이외에는 인근 국가에서 여행 시 구매하는 성향도 강함.
 - 그러나 구유고부터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수입시장을 주도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장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유럽의 안마당)** 구유고연방 분리국가*와 밀접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와의 교역 활발
 - * 구유고 연방 국가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 총 7개국
 - 대부분의 공산품은 소규모 수시오더 가능성, 신속한 딜리버리, A/S 및 마케팅 지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근 서유럽국가로부터 수입
 - 유럽에 현지법인, 물류창고나 지사가 있는 공급업체 선호
 - 한국산, 일본산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유럽 내 공장, 중국, 동남아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수입
- **(소비시장)** 조선, 무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제조업 분야가 존재하나, 관광 산업이 가장 활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시장보다는 소비시장의 특성이 강함.
 - 관광(GDP의 약 20%), 식품, 의약, 정유, 조선 등이 주요 산업
- **(대형유통망 확대)** 식품은 토종 기업인 Konzu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뒤를 이어 외국자본인 InterSpar, Metro, Billa, DM 등의 대형유통망이 다양한 소비재 취급
 -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한 진출 필요
- **(소비성향)** EU 평균 소득 보다 낮고 경제 규모가 6백억 달러대로 작아 저가품 위주의 구매성향이 강함.
 - 하지만, 유명 브랜드 선망의식도 있어, 저가품과 고가품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2. 상관습과 현지 민심

- 크로아티아인들은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크로아티아가 소련 주도 하의 동구권(Eastern Bloc), 발칸 국가(Balkan Countries)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며 **중남부 유럽(Central Europe)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선호**
 - 상거래 혹은 협상 중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 동구권 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시장규모가 적어 소량 주문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다품종 소량 주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거래개시 필요
 -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혹은 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이어 모색 필요
- 크로아티아 비즈니스맨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실한 편이나 **업무처리/의사결정 속도가 다소 느린 관계로 거래 성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
- 지급조건 관련, 일람불 신용장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신용을 쌓아 T/T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크로아티아인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 시 각종 스포츠 관련 화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 특히 축구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이외에 핸드볼, 농구 등의 단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Luka Modric(레알 마드리드), Mario Mandzukic(에이씨밀란), Ivan Rakitic(바르셀로나) 등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주축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

3. 한국에 대한 인지도

- 크로아티아 국민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지도와 국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
 -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의 2021년 점유율은 13.2%로 1위를 기록, 약 6천 대 이상 판매하였으며, 핸드폰은 삼성 Galaxy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TV 등 한국산 가전 제품도 판매 호조, 한국산 품질 관련 높은 인지도 형성에 기여
 -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에 대한 선망의식이 있으며, 정부 및 정치권에 서도 한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

IV.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

1. 개 요

□ 경제동향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중동부 유럽의 물류 기지화를 추진 중
- 91~95년까지의 독립전쟁에 따른 제조업 퇴보 및 국가분할로 인한 시장 상실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으며, 비효율성·관료주의 등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비합리적 관행 잔존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4년까지 지속하였으나,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19년까지 2~3%대의 성장세를 이어감
- 그러나 2020년 COVID-19 여파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를 기록하였음
- 2021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과 더불어 관광객도 과거 수준에 근접한 13.8백만 명이 방문하여 경기 회복에 기여, 당초 기대보다 높은 10%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

□ 2022년 경제전망

- IMF는 2021년 코로나 피해의 신속한 극복과 경기 회복으로 인해 당초 기대 이상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로 인해 2022년은 오히려 2021년 10월 전망치인 5.8%보다 줄어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면서 크로아티아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연이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경제 성장이 기대

<IMF 크로아티아 2022년 경제성장률 수정 내역>

(단위: %)

구분	2021년 10월 발표	2022년 4월 발표
경제성장률(%)	5.8	2.7
실업률(%)	7.95	7.7
GDP대비 경상수지(%)	-0.082	-0.423
소비자물가상승률(%)	1.98	5.87

자료: IMF

- 다만 일일 코로나 환자 수 감소로 유럽이 코로나 제재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크로아티아도 5월 1일부로 모든 입국제한을 해제하여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도 본격적으로 방문이 예상됨
- 또한 EU는 코로나 회복을 위해 회복 및 복원력기금(RRF : Recovery and Resilience Fund) 6,725억 유로를 조성하여, 이 중 크로아티아에게 무상 63억, 융자 36억 유로를 지급기로 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 활용 예정
- 하반기 경기는 전세계 공급망 이슈 해결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 되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의 사태로 자국 화폐 가치도 달러 대비 절하되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화폐가치 정상화도 필요
- 정부는 배정된 EU 기금을 빠르고 신속하게 활용키 위해 계획 수립 및 집행 중에 있으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및 소비재 물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안을 발표
- 2022년은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며 가입이 되면 2023년 1월 1일부로 유로화가 단독 사용, 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예상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억 달러)	555	614	607	569	678
GDP 성장률(%)	3.44	2.81	2.86	-9	10.4
1인당 GDP(달러)	13,450	15,009	14,939	14,072	14,818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8,818	19,991	20,770	17,351	25,022
외채(백만 유로)	43,548	42,582	40,227	40,074	44,609
실업률(%)	12.4	9.7	7.8	9.2	8.2
물가상승률(%)	1.1	1.5	0.8	0.2	2.6
외국인투자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백만 유로)	447.0	1,084.5	3,475.2	1,045.5	3,776.5
평균임금(월/EUR)	1,072	1,139	1,214	1,494	1,359
환율(HRK/EUR)	7.4601	7.4141	7.4136	7,5331	7,527

자료: IMF 및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3. 크로아티아 대외무역 동향

- 2013년 EU가입 이후, EU 자금을 활용한 제조업 강화, 외국 생산 시설 유치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
 - 지난 5년간 전자기기, 의료용품,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수출 증가세 뚜렷
 - 전기차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 수입부문에 있어서도 수출 품목과 비슷한 중간재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품목은 연평균 수입액을 유지

<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US\$백만)	13,813	16,074	17,402	17,181	17,167	22,715
수입(US\$백만)	21,905	24,837	28,203	28,161	26,719	34,430

자료: Global Trade Atlas

- 2021년 크로아티아의 무역 규모는 571억 달러. 수출과 수입의 85% 이상이 EU 국가와 이뤄지고 있음. 전체 교역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음
 - 독일(76억 달러), 이탈리아(70억 달러), 슬로베니아(66억 달러), 헝가리(45억 달러), 오스트리아(40억 달러) 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50%에 육박
- 크로아티아의 수출액은 2021년 227억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국은 독일, 이태리,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순
 - 주요 수출품목 : 광물성 연료(16%), 전기제품(8.8%), 기계류(7.1%), 의료용품(5.1%) 등

<주요 수출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광물성연료, 에너지	1,301	1,709	1,853	1,671	1,551	3,524
전기기기, TV, VTR	1,223	1,376	1,433	1,439	1,599	1,991
보일러, 기계류	1,254	1,379	1,479	1,446	1,366	1,614
의료용품	930	1,257	1,058	1,117	1,162	1,150
목재류	790	870	972	923	908	1,220
자동차 및 부품	514	643	812	977	786	770
철강제품	428	521	574	573	556	730
알루미늄과 그 제품	304	482	517	542	554	723
가구	550	532	497	481	525	641
의류(편물제)	493	539	578	575	515	615

자료: Global Trade Atlas

- 크로아티아의 2021년도 총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중국 순
 - 주요 수입품목 : 광물성연료(15.2%), 기계류(8.6%), 전기제품(8.3%), 의료용품(5.2%), 차량(6.5%), 플라스틱 및 그 제품(4.7%) 등

<주요 수입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광물성연료, 에너지	2,682	3,289	3,811	3,437	2,711	5,236
보일러, 기계류	2,155	2,429	2,643	2,722	2,564	2,972
전기기기, TV, VTR	1,724	1,962	2,280	2,180	2,318	2,855
의료용품	1,267	1,134	1,308	1,413	1,786	1,789
자동차 및 부품	1,575	1,853	2,293	2,431	1,782	2,25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82	1,059	1,222	1,204	1,166	1,609
의류(편물제)	612	677	777	762	765	894
철강제품	570	651	728	788	753	991
철강	527	607	709	666	638	1,111
가구	444	508	597	617	591	713

자료: Global Trade Atlas

4. 한국-크로아티아 간 교역 동향

□ 최근 교역 동향 및 특징

○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1.76억 달러

<한국-크로아티아 간 수출입 추이>

(단위:US\$백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448	328	241	241	97	142
수입	13	16	19	27	23	34
무역수지	435	312	222	214	74	108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0년 교역은 코로나와 가장 큰 수출품목인 의약품이 큰 폭으로 줄어 교역량이 크게 줄었지만 2021년 수출입이 각각 46% 증가, 일부 회복
- 그 간 양국 교역은 2013년 최저치 기록 이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같은 경기 호재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16년 최고치인 4.6억 불을 기록
- 이후 2017년 선박 대금 결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교역량이 계속 감소 중에 있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로 큰 폭 하락 후 회복중인 모습
- 다만 우리나라는 인근 유럽국가, 중국, 동남아 현지 공장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 및 자동차 제품의 상당량은 통계에는 누락
-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기타기계, 합성고무, 공기조절기, 전기강판, 화학기계, 합성수지 등
 - 한 동안 크로아티아 내에 한국산 복제약 디스트리뷰터의 영업으로 인해 의약품 수출이 활기를 띄었으나, 2019년 124,606천 불 수출에서 2020년 1,843천 불로 급감
 - 공기조절기, 화학기계, 기타기계류부품, 기타산업기계 등이 큰 폭 증가
- * 전자제품, 핸드폰, 자동차의 경우 현지 또는 제3국 생산에 따라 비중이 작게 나옴.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US\$천)

순위	MTI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7411	승용차	16,824	-54.3	19,586	16.4
2	7901	기타기계류	7,911	162.0	17,717	124.0
3	2150	합성고무	2,321	-42.3	14,693	533.1
4	7131	공기조절기	55	298.8	8,583	15,423.3
5	6135	전기강판	5,615	-7.6	7,465	33.0
6	7216	화학기계	10	-13.4	6,411	65,092.3
7	7902	기타기계류부품	185	-33.9	6,293	3,301.1
8	2140	합성수지	3,975	-69.8	5,306	33.5
9	7513	베어링	3,813	43.3	5,304	39.1
10	7414	전기자동차	3,647	98.7	4,964	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1년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은 약 3천 4백만 달러 수준으로, 단기 수입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연도별 수입 품목 변화폭이 매우 높음
 - 2020년 대비 약 45.9%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동광, 편직제의류, 운반하역기계, 축전기, 저항기 등이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US\$천)

순위	MTI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1130	동광	0	0.0	10,626	0.0
2	4411	편직제의류	2,005	18.0	2,555	27.5
3	7121	운반하역기계	0	0.0	1,947	0.0
4	8333	축전기	1,595	-1.1	1,917	20.2

순위	MTI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5	8331	저항기	1,008	17.0	1,560	54.8
6	7441	철도차량	773	0.0	1,450	87.6
7	5142	취미오락기구	748	-37.9	1,427	90.8
8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45	14,909.7	897	1,905.4
9	0312	제재목	336	-12.9	819	144.2
10	0156	식물성한약재	823	70.7	722	-12.2

□ 향후 한·크 무역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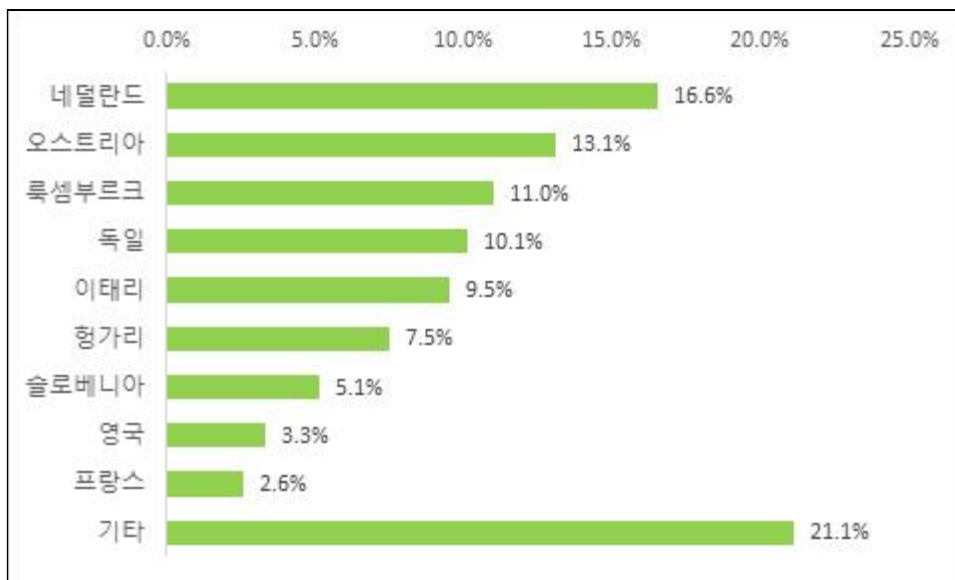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 대하여 품질, 디자인 등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향후 전반적 시장진출은 계속 확대될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내 물류기지 공동 사용을 통한 신속한 딜리버리 체계 구축, CE 인증 또는 크로아티아 인증획득, A/S지원 등에서 유럽 공급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 : 의약품원료, 화장품, 전자의료기기, 합성수지, 강판 등
- 또한 유로존 가입 이후 EU 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EU 미가입 구유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나에 공장설립이나 물류기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정에 착수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투자 진출 시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 가능

V. 투자 환경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1993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크로아티아의 투자유치액은 총 388억 8천만 유로
 - 2021년(2분기) 투자 유치액은 37억 유로로 전년 연간 총액보다 2.6배 증가
 - 누적기준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유럽국가로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
 - 유럽 이외의 국가로는 러시아(16위), 미국(21위), 터키(23위), 중국(25위), 홍콩(27위), 한국(29위)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누적 투자액은 13억 유로
 -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크로아티아 전기차 생산기업 리마츠(Rimac Automobili)에 2019년 8천만 유로 투자 이외에는 소액의 서비스업 진출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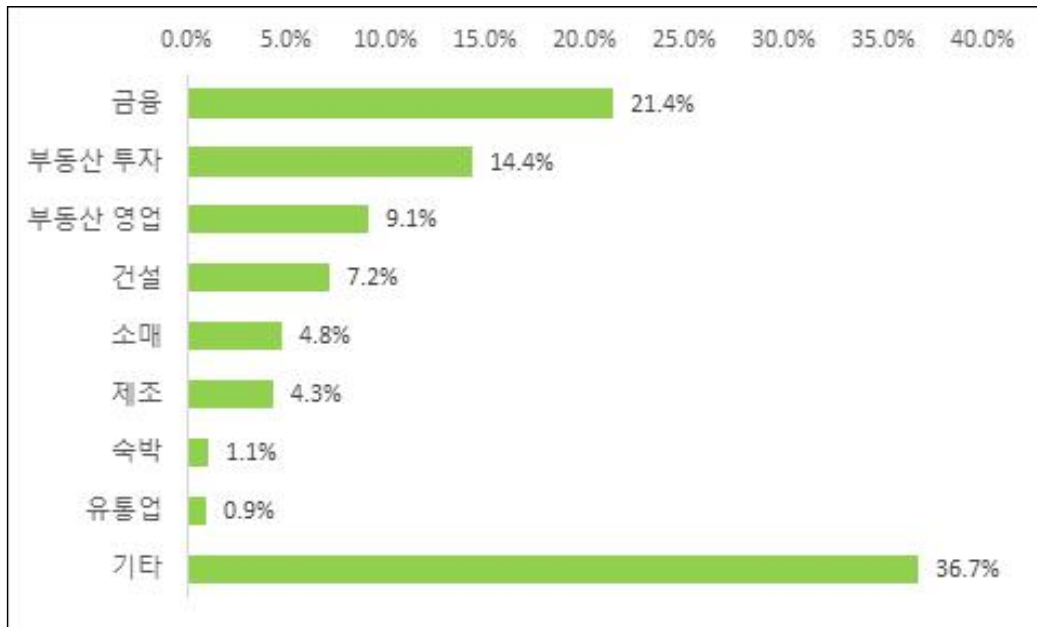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투자 주요 국가별 투자 비율 >



자료: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부동산(23.5%), 금융(21.4%), 건설(7.2%), 소매(4.8%)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으로 전체 50% 이상

< 산업별 투자 현황 >



자료: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여타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금융 및 부동산 등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
 - 91년부터 약 5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그린필드 투자 유치 기회 상실
 - 동 기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 진출

2.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

-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 2013년 7월 EU에 가입하면서 EU 및 동구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구유고연방국가(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뿐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 차량 및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
- (양질의 인력 및 낮은 기업운영비) 문맹률이 0.8%에 불과하고, 40세 이하 인구의 77%가 영어구사 가능하며,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 부과 (사무실임대료, 전기, 가스, 상수도 등)

- **(협소한 내수시장)** 인구 389만 명의 소국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주변국 및 유럽 인근 국가 동시 진출 필요
- **(관료주의, 사법 체계의 낙후성)** 과거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정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낮은 법률변경, 허가 절차 지연 등의 장애 요소 인지 필요
- **(높은 세금체계 및 복잡성)** 25%의 높은 부가세는 크로아티아 자국 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법인세는 18%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 시 12%의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세금이 높은 편

다.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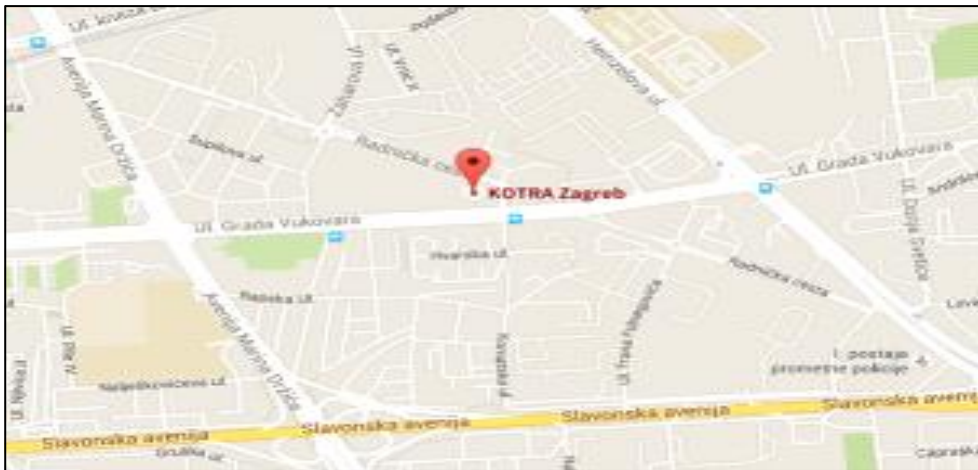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는 삼성전자 판매법인(구유고연방 관할) 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지기업 지분 투자가 유일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 투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
- 한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개인 차원의 숙박 및 요식업 투자는 다수

VI. 체류 정보

1. 주요 연락처

대 상	연 락 처	비 고
자그레브 무역관	TEL : (385-1) 4815-101 FAX : (385-1) 4818-821 E-mail : kotrazag@kotra.or.kr	자그레브 내에서 전화 시에는 1을 누를 필요 없이 7자리 숫자만 사용
채희광 관장	Cell: (385-91) 633-4555	
이정준 과장	Cell: (385-91) 233-4555	
콜택시	UBER(핸드폰 어플 이용), 1212	
한국대사관	(385-1) 482-1282	박정현 부영사

※ 무역관 오시는 길



주소: Radnička cesta 52/VIII (그린골드 빌딩 R2 8층)

근무시간: 월-금요일 08:30-17:00

○ 위치

- 자그레브무역관은 최근 신규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고 있는 라드니치카 체스타 (Radnička cesta) 거리에 있으며, 자그레브공항에서 약 15km 거리에 있으며 택시, 또는 버스를 통해 방문 가능

○ 방법

- **(택시 이용)** UBER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약 100쿠나(한화: 1만 8천 원)로 도착 가능, 그린골드 빌딩(Green Gold)를 안내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음.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영어 소통 가능. UBER 이용이 어려울 시는 공항 청사 앞 택시를 200쿠나(한화: 3만 4천 원) 정도에서 이용 가능.
- **(버스 이용)** 공항버스를 이용(30쿠나)하여 자그레브 시내 종점(Central Bus Terminal)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

※ 대사관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 482-1282
- Email: croatia@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r-ko/index.do>

2. 현지 날씨

- 한국의 사계절과 매우 유사하나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습한 특징을 보임.
- 여름 평균 기온 : 최저 15°C, 최고 26°C
겨울 평균 기온 : 최저 -3°C, 최고 7°C

3. 간단한 현지회화

- 아침 인사 : Dobro Jutro 도브로 유뜨로
- 낮 인사 : Dobar Dan 도바르 단
- 저녁 인사 : Dobro Vecer 도브로 베체
- 고맙습니다 : Hvala 흐발라
- 네/아니요 : Da 다/ Ne 네
- 얼마입니까? : Koliko Kosta 콜리꼬 코슈타?
- Please, (Excuse me!) : Molim Vas 몰림 바스
- 좋습니다 : Dobro 도브로
- 미안합니다 : Oprostite 오쁘로스티테
- 헤어질 때 인사 : Dobidjenja 도비제냐

4. 체류시 유용한 정보

- 긴급상황 시 연락번호
 - 긴급상황신고 및 구조요청(통합): 112
 - 경찰: 192, 화재: 193, 도로교통사고: 1987
 - 응급의료 및 병원정보(구급차 요청): 194
- 젊은 층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영어간판, 영어안내문 등은 없음.
 - 중장년층의 경우, 영어 구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교민은 대사관, 코트라, 삼성법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 정도임.
-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도 운영하고 있음

상호	주소	연락처	비고
크로케이(Cro.K)	Pod Zidom 4	(385-1) 4819-525	한식당
엄마식당(Omma)	Unska Ulica 2B	(385-99) 467 0701	한식당
한인마트(Korean Mart)	Širolina ul. 8	-	한국식품점

-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소매치기나 관광객 상대 범죄는 거의 없음.
- 환전
 - 은행 및 시내 환전소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과 환전소의 수수료 차이가 사실상 없음.
 - 현지 환전소 간판명은 'MJENJACNICA'임.
- 약국 : 녹색 십자가와 함께 Ljekarna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약국임.
- 대중교통
 - 트램(전차) :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 이하 1회 탑승요금은 4KN, 60분은 7KN, 90분은 10KN이며, 시간 내에는 환승도 가능함. 정류장 주변의 신문가판대(iNovine나 Tisak)에서 승차권 구매 가능함. 트램(전차) 내 운전기사로부터 티켓구매도 가능하나 티켓 가격이 6KN/10KN/15KN으로 더 비쌈.
 - 택시이용 : *UBE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콜택시를 부르거나 (전화번호: 1212) 호텔 앞이나 거리에서 빈 택시가 있으면 바로 탑승가능. 자그레브 시내 기준 기본요금은 10KN (약 1,800원)이며 1km당 6KN (1,200원)씩 가산됨.
 - * UBER app 다운로드 링크 :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아이폰\)](#)
 - ** 한국 신용카드 등록후 사용가능

- 식수 :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는 하나, 석회석이 함유되어 있어
가급적 생수 구입을 권장
- 국제전화사용
 - 한국에 전화 시 : 00-82(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수신자부담 전화 시 : 지역번호 없이 901을 누르면 한국 측과 연결해 주는
교환원과 연결되며 국가명, 전화번호, 수신자(상대방) 이름을 알려 주면 수
신자부담으로 연결해 줌
- 한국과의 시차
 - GMT+1로 한국보다 8시간 늦음.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동안은 서머타임을 실시하여,
7시간 늦음
- 쇼핑
 - 시내 및 시 외곽에 백화점, 쇼핑몰, 기타상점이 있어 필요한 물품은 불편함
없이 구매 가능
 - 개점시간: 통상 월-금 10:00~20:00(토요일에는 오후 1시 또는 3시경에 폐점)

5. 관광 정보

- 크로아티아는 남동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는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등
 - 1979년 유네스코는 두브로브닉 올드타운,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안 궁전,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플리트비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
- 자그레브 관광지로는 성 스테판 성당, 성 마르코 교회, 성 카테리네 교회
그리고 자그레브의 중심가인 트르그 반 엘라취츠 광장이 있음.

< 주요 관광지 >



<성 스테판 성당(Kaptol)>

12세기경 창건된 이후 1242년에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1880년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난을 당한 건물임. 108m의 쌍둥이 첨탑은 19세기 후반에 네오고딕 양식으로 올려졌고 사원의 분위기는 바로크 양식을 취하고 있음



<성 마르코 교회>

시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이며 교회의 지붕을 보면 화려한 모자이크로 왼쪽의 휘장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함

크로아티아의 NATO 가입을 앞두고 2008년 5월, 크로아티아 최초로 미국대통령(부시)이 방문하여 연설한 장소로도 유명함



<플리트비체>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약 3만 ha의 넓이의 호수공원. 총 16개의 호수가 층층 계단을 이루고 각 호수는 약 90개의 폭포로 연결되어 장관을 이룸.

또한, 석회침전물을 생성하여 1200여 종의 희귀식물들이 자생함. 7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5세기경임.

< 주요 관광지 >



<두브로브닉>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닉은 13세기경 건설된 중세시대 백색 도시. 당시 베네치아의 경쟁자로서 상업 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아드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UNESCO에 등재

시가지는 1940미터 길이의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 축성은 13세기에 디자인되어 17세기에 완성



<스플리트>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의 제2도시(인구 약 20만 명)로 중부 달마시아 지역의 경제, 행정 중심지임.

로마제국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궁전을 건립했으며 궁전 사방에는 4개의 대문이 있고 16개의 타워로 축성되었는데 그 모양새가 로마군 캠프와 유사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